

서울 중심 용산의
아름다운 독서 공간

북파크 라운지

글 문예진 사진 조재은



3개 층에 걸쳐있는 3천 권의 책

바야흐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선선한 바람이 책장을 넘기는 가을을 맞아 책과 자연, 커피와 공간이 어우러진 북파크라운지로 향한다. 북파크라운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뮤지컬 공연장인 블루스퀘어에 위치한다. '책과 휴식이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슬로건으로 2019년에 처음 문을 열었으며, 이후 지난 4년간 많은 이들의 독서 아지트로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아름다운 인테리어로 유명해 방송에도 여러 차례 소개되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2번 출구에서 푸른색의 블루스퀘어 건물을 만난다. 층별 안내도에 따르면 북파크라운지는 3층 1개 층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블루스퀘어 1층의 입구에 들어서면 누구든 거대한 나무 책꽂이에 가장 먼저 눈길을 뺏긴다. 건물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웅장한 책꽂이에는 3,000권에 이르는 각 분야의 다양한 도서가 전시되어있다. 마치 영화 해리포터 속 호그와트 서재를 떠올리게 하는 책꽂이는 단연 북파크라운지의 상징이자 가장 유명한 포토존이다.

골라 앉는 재미, 골라 읽는 재미

3개 층을 잇는 계단이 거대 책꽂이를 둥글게 감싼다. 계단을 따라 3층의 북파크라운지로 오르는 길, 계단 양옆으로 빼곡하게 채워진 책을 둘러보며 천천히 3층에 도착한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책꽂이는 더욱 웅장하고 거대하다. 멀리 1층에서 고개 들어 천장 끝까지 올려다보는 방문객들이 난간을 따라 참새처럼 기대어 서 있다. 연신 들려오는 감탄과 촬영 소리는 짹짹 허공에 울린다.

북파크라운지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1시~오후 9시, 월요일은 휴무다. 휴무일을 피해 평일 오픈시간에 맞춰 방문하자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점할 특권이 주어진다. 북파크라운지에는 대형 소파, 누워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리클라이너 체어, 칸막이와 책상이 있는 1인 독서실, 야외 테라스, 온돌의자 등 편히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있다. 오늘 앉을 자리를 고르는 일은 수천 권의 책 중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일만큼이나 설레는 일이다. 이곳저곳 앉아보며 가장 편한 자리를 고른다.





독서를 곁들인 한남동 걷기 여행

북파크라운지 중앙의 오픈형 주방은 이용객을 위한 카페다. 음료를 기다리며 카페 앞의 야외테라스를 감상한다. 통창 유리로 아침햇살이 쏟아지듯 들어온다. 날이 조금 더 선선했다면 고민 없이 테라스 자리를 골랐을 것이다. 사방의 책꽂이에는 국내문학, 외국소설, 만화, 잡지, 예술 등 분야별로 책이 정리가 잘 되어있다. 의자, 커피, 책 모든 선택이 끝났다면 이제 마음껏 독서의 시간을 갖는 일만 남았다. 방문객이 많은 주말과 달리, 평일은 이용시간 제한이 없으므로 더욱 여유로운 마음으로 책장을 펼친다. 블루스퀘어에는 북파크라운지 외에도 뮤지컬 공연

장, 전시장, 레스토랑, 기념품숍 등 다양한 문화공간이 있다. 실제로 당일 뮤지컬 관람객은 북파크라운지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북파크라운지 이용 고객은 레스토랑 식사 시 할인이 적용되는 등 각 공간 이용에 따른 연계 이벤트가 있어 함께 둘러보기에 좋다. 또한 이곳 한남동은 맛집과 패션의 거리로 유명한 곳. 북파크라운지를 곁들인 한남동 걷기 여행도 추천하는 바이다. 🍵

- ① 방문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거대한 책꽂이
- ② 독서의 편의를 돕는 대형 소파와 리클라이너 체어
- ③ 통창이 인상적인 카페 야외 테라스
- ④ 이용객을 위한 오픈형 주방 카페
- ⑤ 간막이와 책상이 있는 1인 독서실